

하나님의 구원

성경말씀: 벰후3:9

1. 인류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바쁘게 사는 사람들: 2010년 현재 인구 68억 명

초당 4.4명 출생, 1.7명 사망

계속 들어나도 감당이 될까?(식량, 환경, 자원 등), 지구는 계속해서 돌아갈까?

인구의 최대 한계: 85억 명, 2050년에 94억(2009년 8월 13일 연합뉴스)

화석 연료, 2050년이면 한계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과연 종말은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초림은 성경기록대로 이루어졌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다.

성경기록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하는가?

2. 우리 주변의 문제들

1. 재난: 아이티 지진(1월), 20만 명 이상 사망,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늘고 있다.
2. 기근: 아프리카, 북한(수십만 명 아사, 어린이 영양실조 60%로 세계 1위)
3.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911 테러
4. 질병: 에이즈(사하라 남부 전 세계 에이즈의 70%), 신종플루, 조류 독감, 싸스
5. 빈부의 양극화(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6. 창조 세계의 신음: 종의 멸망, 기후 변화(오존층, 온난화, 사막화 황사 현상)
7. 학정: 북한 독재 체제(수백만 명이 처형됨), 전 아랍권, 아프리카, 아이티
8. 문화의 저질화: 중학생 알몸 졸업식 사건, 인터넷, TV 프로그램의 저질화
9. 사악한 죄들의 확산: 동성연애, 살인, 간음
10. 진화론의 확산: 유물론, 물질만능주의
11. 인간성의 상실: 타고난 애정이 없다(낙태, 유기, 유아 유괴)
진리를 추구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 결론

사람들 안에, 지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인류와 지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심지어 진리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교회마저도 타락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고 있다.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마24:37; 눅17:26).

왜 그럴까?

3. 인류의 역사

1. 진화론은 200억 년
빅뱅: 200억년 전
지구: 50억년 전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 5천만년 전
사람: 100만년 전
2. 성경은 6천년
3. 선사 시대, 역사 시대(BC 2500년경)

4.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지구를 보면 예전에 한 군데에 하나로 뭉쳐 있었다.

독일의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원래 판게아라는 한 대륙에서 오대양 육대주로 나뉘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프리카 서해안과 남미의 동해안, 유럽의 서해안과 북미의 동해안

http://cafe.naver.com/jsdnnav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14

창10:25절은 분명히 노아의 후손인 에베크와 벨렉 시대에 지구가 나뉘었다고 기록한다.

‘에베크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for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BC 4200년경

그때의 중심은 지금의 중동, 더 자세히는 팔레스타인(가나안) 땅이다.

거기에 에덴동산이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문제이다(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

중동의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증거이다.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약속해 주신 저 땅을 그의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이 차지한다.

이스라엘 대체론은 거짓말이다.

말세의 이스라엘(슥12:1-2)

근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던 민족이 1948년 5월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웠다.

1400만 명, 세계의 재물, 학문, 예능계, 노벨상을 석권하고 있다. 하바드, 예일 대학의 25%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아랍 사람들과의 마찰이 심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온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이 있지만 결국 인류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진행되고 있다.

BC 550년경의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부활되는 로마제국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지금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 부흥할 때이다(유럽의 부흥).

미국과 영국 앵글로 색슨족의 쇠퇴(유대인, 성경 보호)

- 구소련의 붕괴
- 유럽 연합 국가의 탄생
-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모두 아브라함에게 근원을 두고 있다(전 세계 인구의 반)
-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이다.
- 911 사태, 알몸 투시 검색기
- 가장 기독교와 유대교에 적대적이다.
- 종교의 통합: 다 같은 신을 믿는다고 한다. 반기독교 연합전선

o 결론

앞으로 이 세상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

4. 사람의 가장 큰 문제

모두가 죽는다.

초당 4.4명 출생, 1.7명 사망

당신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가?

죽음만 문제가 아니다.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누구나 양심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산다.

롬1:29-31

‘29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31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다 느끼고 알고 있다.

● 결론

사람의 죽음과 양심을 통한 죄 문제를 볼 때에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5. 기독교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의 문제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개발해 냈다.

보상 심리로 나의 잘못, 양심에 찢리는 일을 나의 선한 행위로 만회해 보려는 시도

불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뉴에이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다다르려는 시도이다.

그러면 기독교도 이런 종교 중 하나인가?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다가오는 시도이다: 개미와 사람으로 설명

기독교는 사람과 모든 창조물과 지구와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독교는 인간 내면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며 시간에서부터 영원에 이르는 공간을 커버한다.

잘못된 기독교: 개독교와 먹사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와 많이 다르다.

시작부터 샤머니즘과 묘하게 결부되어 있다.

복 받는다, 시험 점수 잘 받는다, 일이 잘 된다 등

교회당 건물 숭배, 록 음악 등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

매관매직(총회장, 감독, 장로...)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음악, 문화, 정의구현사제단, 민주화목사, 정당대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 가서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마리아, 신부, 신부 노릇하는 목사, 성당 노릇하는 교회(성전 ...)

현금 갈취해서 신문사 차리고 불필요하게 건물 치장하는 곳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현세에서의 인간 내면의 죄 문제와 영원한 세계에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룩함, 선함, 아름다움, 권능의 극치이다.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아담으로 이해 파괴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한다. ★★★

그래서 인간 자신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는 문제, 지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결된다. ★★★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우지고 궁극적으로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목적은 먼저 영혼육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원 세미나는 이런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다룬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개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된다. ★★★

6. 구원

구원(Salvation): 구출한다. 건져 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음을 보았다.

인류의 역사가 성경대로 움직임을 보았다.

말세가 가까워 옴을 보았다.

그래서 이런 상태(죄와 더러움과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이 필요하다. ★★★

기독교 믿음의 시작은 구원받는 데서 시작된다.

개인의 구원이 없으면 교회 생활, 선행이 다 소용이 없다.

먼저 뱃속에서 나온 뒤에야 자랄 수 있다.

교회와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일: 개인의 구원 ★★★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이 되기는 쉬워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

7. 기원의 문제

구원 문제는 기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다.

●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1.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2.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3. 나는 어디로 가는가?

기원과 종착지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다.

1.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언제 어디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가?

한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태백시 삼수동 대백산 검룡소

인간의 기원, 인간의 조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누가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가?

사람은 항상 존재해 왔는가?

사람이 없던 때도 있었는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

사람이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지구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지구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 인간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생각

1. 진화론:

무에서 유가 생겼다.

질서가 낮은 개체에서 종이 바뀌어 질서가 높은 종으로 진화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사람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 생명은 무생명에서 나오지 않는다.

종이 바뀌는 일은 없다. 이것이 참된 과학이다.

설계가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살 수 없다.

종로에 가서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의 상을 보라.

그냥 저절로 생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2. UFO 이론

다른 별에서 생명체가 와서 사람을 만들었다.

에릭 본 다니켄: “지구에는 원래 진화에 의해 동물과 식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4만 년 전에 우주에서 지적인 초인간들이 와서 땅에 있는 원숭이들을 유전 공학을 통해 변화시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7000년 전쯤에 그들이 이 땅에 다시 와서 그 중에 두 명을 취해 유전 공학을 좀 더 잘 이용하여 아담과 이브라는 두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현 시대 인류의 조상이다.”

우스운 이야기인데도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

특히 말세에 UFO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진리가 있다.

1. 지적 설계가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이론은 진화론에 직격탄을 날린다.

그러면 이 초인간들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이들은 진화했을까?

2. 과연 누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

진화론자들에게는 큰 문제다. 그때에는 미개한 사람들만 살았다.

UFO 사람들: 외계인이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3. 창조

위의 두 생각의 대안은 단 하나밖에 없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가 사람과 동식물과 온 우주를 만들었다.

창1:1; 1:27; 2:7...

예수님의 말씀: 마19:4(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기독교와 유대교만 유일한 창조를 가리킨다. 말로만 창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 불교, 힌두교, 천주교(교황 바오로 2세, 1996년, 창조와 종의불변 부인), 이슬람교(기독교인들 저주, 그들만 가는 지옥이 따로 있다), 뉴에이지, 무신론

즉 이 세상에는 창조와 진화라는 두 개의 믿음 체계만 존재한다.

4. 과학자들의 증언

불신 과학자의 고백: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1967년에 생리학/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 (George Wald)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인본주의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발생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논리적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George Wald, "The Origin of Life," Scientific American, May 1954)

5. 그냥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다. 불가능을 믿는 사람이다.

오렌지, 우유, 손톱, 머리털, 눈을 보라.

하나님을 알 만한 이유를 모두에게 주셨다(롬1:18-23).

단 하나의 이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치 않기 때문에

6. 창조의 증거

○ 인구 증가율: 진화론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다고 한다.

2명에서 시작, 인구증가율 0.5%로 계산, 현재 인구: 10^{2100} 명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 10^{130} 개

현재 인구: 68억 명

성경은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6000년이라고 말한다.

노아의 홍수: 대격변, 온 세상이 잠김

대홍수 BC 2348년, 8명

8명 혹은 6명을 0.45% 정도의 인구 증가율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의 인구가 나옴.

단군의 기원: BC2333년 노아의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의 연대와 동일함

배 주(舟)와 배 선(船),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미션하우스), 흥

○ 비행기(우주 왕복선): 부품이 100-500만개, 그냥 비행기가 나올까?

우주 공간의 별들

대한민국, 지구(태양계의 한 행성, 우리 은하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은 크기)

우리 은하는 크기가 작은 은하이다. 이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이 은하들 수십 개가 모여 은하 군을 형성함

이 은하 군이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함.

이 은하 단이 여러 개 모이면 초은하단이 된다.

이 초은하단이 모이면 우주가 된다.

우주는 최소한 1000억 개 정도의 은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별의 개수는 무한대이다.

시편 103:14, 우리는 먼지이다.

이 엄청난 질량과 에너지가 그냥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o 지구의 신비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km

물(태양계에서 유일함)

산소(21%)

오존층

23.5도 경사, 4계절, 여름과 겨울, 식량(미국, 캐나다)

땅이 하늘에 걸려 있다(욥26:7). BC 2000년, 아틀라스

땅은 둥글다(사40:22), BC 700년

욥12:7-10

2.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축구팀,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가 하는 일

빋자루, 냉장고, 자동차,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이 삶에서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빋자루, 냉장고, 자동차가 생겼는가?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창1:26).

그러면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재물, 명예, 성공, 쾌락, 행복, 나 자신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가장 큰 목적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함이었다.

그러려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벧후1:4) ★★★

로봇하고 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으셨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 ★★★

사람의 창조 이전에 천사들(천상의 존재들)을 지으셨다. 그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물을 준 사람이 잘못된인가? 그것을 악용/오용/남용하는 사람이 잘못된인가? ★★★

아버지가 자동차를 아들에게 준다. 아들이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선용/악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이 자유의지를 선용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법과 죄를 짓게 되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이런 본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

롬3:23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죄다.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가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3. 나는 어디로 가는가?

과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현재: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미래: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길이요 여행이다.

목적지를 모르고 여행하면 얼마나 불안할까?

고속도로의 수많은 차를 보기 바란다. 다 최종 종착지를 알고 있다.

비행기를 보라.

아프리카 남부의 스프링백 산양 이야기

이유도 없이 내리달려 절벽으로 간다.

당신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가?

● 모든 사람이 100% 확실히 가는 곳: 무덤

모든 사람이 죽는다(히9:27). 70-80세(시90:10)

사망은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이였다(히2:14-15).

“죽는 데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이다.

지금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으면 어떨까?

전혀 떨림이 없을까?

심지어 소도 도살장에 갈 때 눈물을 쏟고 안 가려고 한다.

의사와의 약속: 그 다음에 또 약속한다.

그러나 사망은 그것으로 끝이다.

미국 여행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자.

1. 한 사람에게 물어본다.

2. 나 스스로 해 본다.

죽음의 경우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사망 직전에까지 간 사람들 이야기).

이 세상의 아무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A. 진화론자들의 말: 사람은 살과 피와 뼈로 된 물질이다. 죽으면 끝이다.

B. 윤회론자들은 죽어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소, 돼지, 벌레, 살생 금지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상응하는 윤회만 믿는다.

이것은 진화론의 최종 단계이다.

아메바에서....사람, 그 다음은? 신이 되는 것이다(부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

창3:1-4, 1.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2.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3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C. 기독교: 히9:27, 영과 육과 혼이 있다. 혼은 사람 그 자체이다(창2:7). 몸은 껍데기이다.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심판이 있다: 목적을 이루었는가를 재판하는 것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심판이 있다.

야구 공, 안경, 연필, 스트라이크, 볼, 상사의 심판

롬2:5-8: 5 다만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6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7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8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새 예루살렘, 불 호수

4.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

세상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시험, 물건

그러나 인생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다.

8. 하나님의 해결책

1. 기독교는 왜 사람이 죽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종교이다.

왜 죽는가?

죽는 이유를 알면 살 수 있지 않은가?

창2:17; 롬5:12

사망: 분리되는 것

육체의 사망: 몸이 혼과 영과 분리되는 것

영원한 사망: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담은 죄를 지은 뒤 곧바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다. 다만 영적으로 죽어서 분리가 일어났다.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같이 살 수 없다.

죄와 범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난다(엡2:1).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든 채로 태어난다(렘17:9).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막7:20-23, 20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22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23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의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다(롬3:10).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3:23).

그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죄의 형벌을 받는다(롬6:23).

이것이 인간의 디폴트 상태이다.

2. 하나님의 치유책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죽음의 원인은 죄며

죄의 치료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롬8:1-4).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 대신 속죄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종교를 보라.

모두 짐승을 잡아 피를 드려 신에게 속죄 행위를 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신 속죄가 이미 들어가 있다.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제사

짐승의 희생으로는 죄를 덮을 뿐이다.

치우지 못한다.

사람이 할 수 없다.

우주공간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온 인류의 죄를 덮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다.

그 순간 죄가 되셔서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셨다.

영원한 희생 예물을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 죄로 인해 사람이 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4. 사람이 해야 할 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 외에 없다. 다 알 수 없다.

창조 세계와 양심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배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산다.

어느 면에서 생명 보험과 같다.

9. 구원 요약

1. 필요성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방해물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는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롬3:10).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임했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인의 정의: 죄들을 많이 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가? 사과나무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왜 죄들을 짓는가?

왜 죄인인가?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들을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가?

아니다. 모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왜 지옥에 가는가?

죄성의 문제: 죄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도토리 키 재기

3. 계획

설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4.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삶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5. 초청

인생은 마치 달리는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 회개(Repentance)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구원의 기초: 회개

구원의 방법: 믿음

바른 구원에는 이 둘이 항상 같이 다닌다.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일, 가짜도 있다(행8:20-21).

한 번 복음 전도에 2000명, 10,000명 구원받았다고 보고를 보낸다.

소위 영접 구원이라 불리는 방법의 문제

현대 교회의 문제: 회개가 없다, 사영리의 문제

1. 회개의 정의

Repent, repentance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 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

성경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 죄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하나님, 나, 죄, 세상, 마귀, 천국, 지옥, 인생 목표 등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사도 바울의 회개 증언:

“내가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행26:20)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 노라.”(행20:21)

2. 회개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하나님(벧후3:9)

예수님(마4:17; 9:13; 눅13:2-5; 24:46-48)

제자들(막6:12)

베드로(행2:38; 3:19)

바울(행17:30; 20:20-21; 26:20)

3. 회개가 아닌 것

1. 개선/개혁하는 것, 인간 중심, 이 세상 중심(성경적 회개, 하나님 중심, 영원 중심)

문제(허물) 중심(성경적 회개, 죄 중심)

2. 참회와 그것에 따른 보속 행위: 카톨릭 교도들, 보속은 세례 이후에 지은 죄들을 사제에게 고백하고 속죄 받는 것

3. 잘못을 후회하는 것: 구약의 사울 왕, 신약의 가롯 유다(마27:3)

4.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구약의 파라오(출9:27; 10:16)

5.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하는 것, 잭 하일스(Jack Hyles)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지옥에 가므로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하면 회개이다(잭 하일스), 믿는다고만 하면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수자를 센다.

Easy believism(Or Easy prayerism, 영접기도 구원): 대가

6.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다: 커티스 헛슨(Curtis Hutson), Sword of the Lord

마음만 바꾸면 된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면 행위 구원이라고 주장함.

7. 회개는 곧 믿음이다. 달라스 신학교, 탈봇 신학교 등의 New Evangelicals, 회개를 무시함.

회개는 행위를 가져온다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몰아붙인다.

a. 회개와 믿음은 구별된다.

b.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회개를 선포했다.

c. 예수님의 대위임에 회개가 들어 있다(눅24:47)

8.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어릴 때 죄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여 아뢰는 것(불가능하다).

한국의 부흥회, 극단적 (보수적) 교회

4. 성경적 회개

솔로몬: 왕상8:47-48

침례자 요한: 마3:1,8

예수님: 눅15:17-19

바울: 행26:20(행19:17-20)

5. 구체적인 예

탕자의 이야기(눅15:17-20)

데살로니가 성도들(살전1:9)

삭개오(눅19:8-9)

빌립보 간수(행16:33-34)

오순절의 유대인들(행2:38-42)

죄인이 백기를 드는 것

죄인이 180도 돌아서는 것

강도가 칼을 버리는 것

도둑이 훔친 것을 돌려주는 것

6. 회개와 믿음

요3:16, 요한복음 전체에 회개라는 말이 없다.

행16:31

이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포함한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위의 두 구절에는 믿음만 나온다.

마9:13; 눅24:47; 행2:38; 3:19, 벧후3:9에는 회개만 나온다.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해야지 성경을 고립시키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에 회개가 없다고 해서 회개가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빌립보 간수: 이미 회개했다.

요4장의 수가 성의 여인: 죄를 회개했다.

회개와 믿음은 별개의 두 가지이지만 구원에서는 하나로 작용한다.

회개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구원의 기초가 된다.

이 기초가 확고해야 바른 구원, 강건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회개는 명백하게, 확실하게 죄를 다루는 것이다.

회개가 없어서 가짜 신자가 판을 친다.

클라우드 이야기: 네팔 선교가, 힌두, 첩, 성경 공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고 함.

첩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최소한 그는 자신의 부도덕함에서 회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적 회개가 있어야 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그 뒤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드십시오.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이단 교리이다.

이것은 절대로 100%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100%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7. 회개에 대한 오해

1. 회개는 단 한 번만 해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만 한다(행11:18).

그러나 성도들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행19:18-20, 고후7:7-10, 계2:5, 16, 21, 3:19).

2.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에서는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다(히12:17; 창27:1-46).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따라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7. 회개 요약

성령님에 의해 죄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참된 회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뒤에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발견된다(시51).

신약성경에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눅13:3, 5).

예수님은 또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눅15:10).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줄곧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행2:38; 3:19; 20:21; 26:20).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행8:22; 히6:1)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행20:21; 계16:9).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눅15:7-10; 뱀후3:9) 동시에 그분의 명령이다(막6:12; 행17:30).

따라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11. 믿음(Faith)

● 명사 '믿음'(Faith)과 동사 '믿는다'(Believe)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한다.

의자에 앉는 것, 자동차와 브레이크, 비행기, 음식 먹기, 엘리베이터, 다리, 개를 쓰다듬을 때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커도 믿음의 대상이 견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대상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1. 배움의 방법

1. 과학적 방법: 물리적인 것을 5감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2. 이성적인 방법: 이성적인 논리로 무언가를 증명한다.

3. 믿음의 방법: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

엡2:8

고후5:7, 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히11:6)

믿음이 생기려면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이해하고 설득받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 인간, 죄,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영원한 장소 등 성경의 계시만 믿는다.

믿음이 단지 역사적 믿음일 때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마귀들의 믿음 같이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약2:19).

그러나 산 믿음 혹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삶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열매로 표출된다.

2. 믿음의 정의

히11:1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체: 기초가 되는 것,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천국, 지옥, 예수님, 성령님, 마귀, 영원한 생명, 소망

믿음이 생기는 길: 들음, 하나님의 말씀(롬10:17)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3. 믿음의 예

히11장: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등 구약 성도들의 믿음

한 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히10:38).

롬1:16-17,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성육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기독교의 믿음

구약시대의 믿음과 신약시대의 믿음은 같은가? 다른가?

같다. 다만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히11장과 히12장 차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히12:2).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간이었다.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 믿음의 삶을 사셨다(기도하심). 십자가를 전디신 믿음, 소망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을 창시하신 분, 완성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

4. 믿음과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다(롬5:2)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4. 믿음과 삶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걸을 수 있으므로(막16:16; 요3:15-16; 행16:31; 요일5:10)
이런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관을 얻는다(딤후4:7-8).

바로 이런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이적을 이루었다(히11:1-40; 행14:9; 고전13:2).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 거할 수 있었다(마17:20; 막9:23; 11:23-24).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진다(롬1:8).

5.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믿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자기 확신 혹은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주여 삼창!', 오순절주의의 믿음, 현금하고 원하는 대로 믿는 것

6. 믿음 정리

믿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랑처럼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다.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 태도이며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후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
즉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며 그 결과 능력과 열매를 상실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해야 한다(갈2:20).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의 사람이다.

12. 은혜(Grace)

은혜란 무엇인가? 170회(창6:8; 계22:21)

믿음인가, 행위인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

롬4:1-8 설명

아이들에게 돈 주는 것, 은혜인가, 보수(빚)인가?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세상의 것들은 은혜를 알 수 없게 만든다.

“거저가 어디 있어?” “그래도 무언가 내가 좀 해야지.”

아이들과 다르다.

사람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은 다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공기, 햇빛, 태어나는 것).

영생도 마찬가지이다.

“또 죄를 지을 텐데요.” “그래 우리는 모두 실패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니?”

만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구원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것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그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상대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believe’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를 방해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을 가르친다(엡2:8-10).

13. 구원 패키지(Salvation package)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요3:16)

하나님의 구원 패키지: 구원, 칭의, 성화, 양자 삼으심, 용서, 구속, 영화, 성령 침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예수님만을 신뢰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이것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다.

유한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이나 복음은 아니다. 잘 들어야 한다.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성화에 대한 성경 기록은 진리이지만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사람은 죄인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 그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 대신 속죄, 하나님의 칭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가만을 보신다(요14:6).

그러면 구원의 완전한 패키지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

14. 구원의 세 단계(Salvation in 3 tenses)

1.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 받는 것(칭의), 위치적(신분적) 구원

2. 현재: 현재 삶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출 받는 것(성화), 현재 삶에서의 구원, 날마다

3. 미래: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영화), 절대적인 구원

15. 구원의 안전 보장과 확신(Assurance of Salvation)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relationship과 fellowship

구원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교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롬6:1) 유명 인사 간증에 넘어가지 말자.

오히려 양심이 예민해져서 조그만 죄를 저도 민감하게 됨.

구원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좋은 징조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양의 피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매일 변한다.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에서 온다.

갑판에서 두 사람의 배수 파이프 이야기, 파이프 직경이 48cm,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배의 설명서가 그렇다고 하기에 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설명서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말한다.

15.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

1. 말씀을 사모한다(벧전2:2).
2. 모이기를 힘쓴다(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이려 한다).
3.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를 죽이려고 애쓴다. 조그만 죄도 너무 크게 느껴진다.
죄 집 이야기
4. 자유함이 생긴다(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유함).
교회에서 위협 협박하면 안 된다(봉사, 헌금, 전도, 모임 등). 갓난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시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을 내어 사람을 변화시킨다.
5. 삶의 태도와 목표가 달라진다.
6.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7.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한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 신약 교회
8. 침례를 받는다.

16. 잘못된 구원 방법

1.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 기도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 믿지 않는 것을 따라 해야 헛것이다.
2. 강대상 앞으로 나가라고 한다.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잘못될 수 있다.
3. Lordship salvation, 칼빈주의: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을 혼동하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장성한 사람을 키워 밖으로 내려는 것

구원	제자가 되는 것
칭의(롬3:26)	성화(살전4:3)
은혜로만 된다(롬11:6)	행위가 동반된다(빌2:12)
믿음으로 얻는다(롬1:17)	신실함을 통해 믿음으로 얻는다(고전4:2)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요3:16)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고후5:14)
그리스도의 십자가(롬5:6)	나의 십자가(마10:38)
영원한 생명(요3:16, 18)	영원한 보상(고전9:24)
유일한 사건(요3)	일생의 과정(엡4:15)
한 가지 조건(행16:30-31)	여러 가지 조건(마18:3)

15. 구원 관련 질문

1. 구원 날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생일도 마찬가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함
성경에 없는 것을 문화로 만들지 말자. 형제 교회의 형님
2. 구원 방법의 다양성, 특정 교회서만 받는가?
어떤 주문처럼 구원받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지 않다. 6일 동안, 반드시 이 교회에서 세미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다양성
미국의 랜드마크 baptist, baptist 브라이트: 독립침례교회만 주님의 교회요 신부다.
이론적으로는 구원받고 교회에 안 다녀도 된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령님이 들어가면 불가능하다).
교회의 형태는 다양하다(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특정 강조점이 다르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려 하는 독립침례교회이다.

3. 예정과 예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가?

극단적 칼빈주의의 예정론: 결정론적 예정론은 성경에 없다. 칼빈이라는 사람의 비성경적 교리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성경은 예지 예정을 말한다(벧전1:2; 롬8:29-30)

4.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마18:3

사7:16

삼하12:23

5.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신다(요1:9).

자연 계시

찾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교사를 보내 주신다.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연계시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지를 만나서 10,000원을 주었다. 곧바로 술과 담배와 마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무한한 것을 주어도 결과가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6. 구원 초청

구원의 초청

기차 타는 사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1

선한 사람들이 교리에 취약하여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마지막 신호(데이비드 차), 마지막 성도: 마지막 일들 정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카페)

오순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 구원 취소 교리

원가를 바르게 이야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로 들어가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

환난 통과 교리도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 중 하나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가르침

첫째,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둘째, 구원의 결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엡2:8-10

딤후2:14

롬11:6

성경은 어디서도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어디서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로 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한 조건이 애매모호하다.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약2:10).

그러므로 죄로 인해 구원을 잃는다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러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되었다.

구원 상실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

자신이 범하지 않는 죄를 열거하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친다(구원파).

이들인 주로 인용하는 구절들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 등이다.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해야 한다. 십자가 사건 이후

성경에서도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기록에서 찾아야 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도행전 10장 이후, 바울의 서신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요한복음 사례

요3:14-16

영원한 생명(eternal life),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벧후2:4)

요3:36

요5:24

요6:35

구원 상실 교리는 대개 이단들이 잘 가르친다. 추종자들을 두렵게 해서 유지하려고

현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청중을 협박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강요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이다(히2:14-18).

요6:37

요6:40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10:27,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자동으로 그분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분의 열매가 나타난다. 인격이 나타난다.

요10:28

요10:29, 아무도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심지어 나 자신도 빼앗지 못한다.

히브리서 사례

히5:8-9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히7:25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히7:25 항상 살아 계셔서 중보하신다.

히9:12 영원한 구속

히9:15 영원한 상속 유업

히9:24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현재 형).

히10:14 성도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과거).

히12:6 자신의 아이들을 징계하신다(정죄가 아니다).

히13:5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히7:25-27

히9:11-12

히9:13-15

히10:1-4

히10:10-14, 미사 불필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롬8:14-17).

명백한 구절들에서 교리를 찾아야 한다.

더 이상 명백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말한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2

선한 사람들이 교리에 취약하다.

성경의 기본 원리에 약하면 평생토록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게 된다.

1. 예수님의 단번 속죄 교리

2.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교리(창2:7; 살전5:23)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이다.

천국 가는 사람도 전 인격체인 영과 혼과 몸으로, 지옥 가는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간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예수님의 재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1000년 왕국이 끝날 때). 계시록 20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순간 그의 영과 혼과 몸은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보장된다.

그런데 혼의 구원과 달리 몸의 구원은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 받을 자들이 올라간다(살전4:16-17: 고전 15:51). 몸의 구속: 롬8:18-24(특히 23-24)

예수님을 믿으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행2:41; 히10:39; 약5:19-10; 벰전1:8, 22; 요일3:9).

혼은 그 사람 자체이다. 혼의 위치에 따라 영과 몸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다(마16:26; 10:28).

영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맞는다.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맞는다.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발생한다.

구원받으면 혼에 대한 정죄는 없다(롬8:1). 영원한 안전 보장

그러나 몸에 대한 정죄(징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어려움에 빠진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집트 탈출,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

어린양의 피를 믿은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대부분의 이스라엘과 소수의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를 떠난 1세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임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다.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출발을 하였다. 그 밑의 아이들은 따라나섰고 이들 중에서 후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았고 안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무엇을 보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불신행위를 본다.

이집트 탈출 자체가 구원이다.

40년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살이,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스라엘의 뉘, 가나안에서도 전투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다.

민수기 12장: 아론과 미리암의 불신행위, 둘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민수기 13,14장: 정탐꾼들의 불신행위, 백성의 불신행위, 11명이 죽고 이집트에서 나온 1세가 다 죽음

민수기 16장: 고라의 무리들의 반역, 250명 사망(35절), 백성 14,700명 사망(49절)

민수기 20장: 모세의 반역(8절, 11절),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민수기 25장: 모압의 딸들과 음행함, 24,000명 사망(9절)

이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혼은 안전한데 불순종하다가 육의 파멸을 당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 1-12절

구원받은 자들도 불순종하면 육신의 파멸을 당한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 사무엘기의 사울

삼상10:21-22, 물건들 사이에 숨음

13장: 불법으로 제물을 드림

15장: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림

15장: 사무엘의 애곡 35절

18장부터: 다윗을 죽이려 함

28장: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 사무엘의 대언(18-19절),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과 요나단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전쟁에서 쓰러져 비참한 최후를 맞음.

롯, 삼손, 요나 등 불순종의 사례들

신약 성경으로 오면 다음과 같은 예가 나온다.

1. 아니니야와 삽비라(행5:1-11)

2. 고전5:1-5(특히 5절)

3. 고전11:28-30

4.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딤후1:20), 믿음에 관하여 파산당함

5. 후메네오와 빌레도(딤후2:16-17), 부활 교리 잘못 이해, 데살로니가 교회에(전서 4장)

6. 데마(골4:14; 딤후4:10)

7. 디오드레베(요삼9-10)

혼의 정죄는 없으나 육신의 정죄(징계)는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인, 에서, 발람, 가룟 유다, 행13장의 키프로스의 바에수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3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고전3:16-17

고전11:29-32

영원한 안전 보장을 부인하는 듯한 구절들

마7:21-23

마12:31-32, 막3:28-30

마24:13-14

마25 열 처녀 비유

히브리서 영원한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함

히5:8-9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히7:25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히9:12 영원한 구속

히9:15 영원한 상속 유업

히12:6 자신의 아이들을 징계하신다(정죄가 아니다).

히13:5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히6:4-6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구절

(1) 의도적으로 주님을 버리고 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6절의 fall away

a. 그리스말: apostasia가 아니라 parapipto이다. 길에서 가다가 넘어진다는 뜻

b.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히브리서 6장 13-15절이 영원한 보장을 말한다).

17절: 계획의 불변, 18절: 거짓말하실 수 없다. 19-20절: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고정되어 있다.

(2)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6:4-6은 그 일이 불가능함을 가르친다.

(3)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4-5절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맛만 보고 먹지는 않았다. No!(히2:9 참조)

이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4) 1세기의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성전 제사). No!(하늘의 성막과 하늘의 대제사장, 우리)

(5) 환난기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No!(히12:23)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6절의 if와 9절의 though이다.

기록자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너희가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너희가 정죄에 이르겠느냐? 구원을 잃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1-3절은 우리, 4절에서 기록자는 갑자기 those로 대상을 바꾼다. 즉 가정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나 있다.

히브리서 6장은 산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대해 말한다.

5장 12-14절: 성숙하지 못한 자들 이야기가 나온다.

6장 1-3절: 그러므로 기초 원리를 반복해서 놓지 말자.

과거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이 믿기지 않아 자꾸 회개하고 구습으로 돌아가는 일을 더는 하지 말자.

7-8절: 열매

9절: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행위

고전3:13-16 평행 구절

http://www.comereason.org/bibl_cntr/con060.asp

흠정역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개역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개역성경은 아예 말이 안 된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4

히10:26-31

가장 중요한 구절: 30절,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집트 탈출 이후 거의 대부분이 징계를 받아 죽었다(고전10:1-11).

여기의 형벌, 원수 갚는 일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의 총 주제

요일5:16(고전11:30)

벧전4:17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은 영원하다.

히브리서의 경우 징계를 받은 자들은 죽었다.

그러나 다 죽는 것은 아니다(히12장).

히10:32-39, 다시 한번 더 격려하며 넘어간다.

38절: 뒤로 불러가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

39절: 멸망에 이른다. 여기의 멸망은 영원한 정죄가 아니다. 몸의 멸망이다(26절부터 보라).

요15:-6

2절과 6절, 가지는 지체이다. 열매를 못 맺으면 제거될 수 있다(몸이 죽는다).

그러나 그의 혼은 영원히 안전하다.

갈5:4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아예 구원이 없다.

롬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 9:3, 개역개정)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롬 9:3, 흠정역)

이 경우도 구원을 잃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의 소원을 강조할 뿐이다.

신32:32 if를 써서 강조함

계시록의 이기는 자: 2:7, 11, 17, 26; 3:5, 12, 21

이기는 자의 정의: 요일5:1-5

이기는 자는 다 믿음이 있는 자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는...”이라는 말씀이 사용됨.

그들의 영적 수준이나 주변 환경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다(계1:20).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이기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으므로 아예 생명책과 관계가 없다.

구약 시편 69:28과 비교해도 된다.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되는 이유

1.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히12:1-2).

롬10:17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사45:22; 요3:14-16)).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요약

1.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 요3:36; 3:16
2.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행의로 구원을 유지하지 않는다. 롬4:3-8; 딤후3:5; 엡2:8,9
3. 구원은 거저 얻는 선물이다. 보수가 아니다. 롬6:23; 롬5:18
4. 구원은 새로운 출생이다. 긴 과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일이다. 고후6:2; 요3:3; 벰전1:23
5.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요일3:2; 롬8:15
6.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롬8:38; 요10:29
7.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히13:5; 마28:20
8. 우리는 항상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요3:36; 요일5:13; 요5:24
9.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 요6:37
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 골2:10
11.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하다. 히10:10, 14
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다. 유1; 딤후4:18
13.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벰전1:5; 유24
14.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히7:25
15.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봉인 되어 있다. 엡1:13; 엡4:30
16.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엡5:30; 고전12:18
17. 구원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요일5:10
18. 믿다가 타락하는 자들은 어떠한가? 고전3:11-15
19. 나중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딤후2:13
20.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전5:1,5
21. 왜 구원을 의심할까? 잠28:26
 - a. 그들은 구원의 단순성을 혼동하고 있다. 고후11:3
 - b. 전통이나 교단의 가르침을 중시한다. 막7:13
 - c. 자기들의 의를 신뢰한다. 사64:6

구원의 보장: 몇 가지 기둥

1. 요10:27-29, 2. 롬8:35-39, 3. 빌1:6, 4. 벰전1:5, 5. 요6:37, 6. 요6:39, 7. 엡1:13-14